

# ‘F1 + 케이팝 + 문화축제’ ... 성공대회 공식 찾았다



구름관중 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이 다양하다. 일부는 껌을 먹고, 일부는 질주하는 F1머신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쁘다.



축하 에어쇼 6일 영암 F1서킷에서 열린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 앞서 공군 블랙이글스 소속 전투기들이 영암호 상공에서 붉은색과 파란색 연무를 뿌리며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신난다 F1” 6일 영암 F1서킷에서 열린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을 관람하던 한 소년 자신이 응원하던 머신이 1위를 달리자 양팔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우린 F1의 꽃” 6일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영암 F1서킷에서 그라운드 걸들이 환한 미소로 대회 참가 레이서들을 맞이하고 있다.



체커기 흔드는 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6일 오후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알리는 체커 플래그를 흔들고 있다.

사진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제4회 영암 F1대회 결산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 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4회째를 맞아 대회 운영은 한층 안정됐고, 교통·숙박 등 인프라도 확충돼 관람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F1을 만끽했다.

하지만 개최권료 재협상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진 전남도와 포플러엔터테인먼트(FOM)가 대회기간 수많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사흘간의 질주, 대회 운영 합격점=F1 조직위는 올해 대회 관람객을 15만8163명으로 집계했다. 연습주행 첫날에는 2만863명, 예선일은 5만8243명, 결승전은 7만957명이 찾았다.

지난해 대회보다 5000여명 가량 줄었지만 15만명을 넘기며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입장권 수입은 작년 128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1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회 4년차를 맞아 교통과 숙박, 대회운영 등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목포 대교 개통,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영암 서킷 가는 길은 관람객이 큰 불편 없이 접근했다.

##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 ... 대회 진행 합격점

### 케이팝 공연 열광·블랙이글 축하비행에 탄성

또 용산~목포 구간 KTX와 고속버스 증편 운행 등 사전에 마련한 교통대책도 효과를 봤다. 경주장 외곽에 조성한 대형 환승주차장으로 차량을 분산 유도하고 500여차례 셔틀서비스를 운행해 차량이 경주장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사전에 막았다.

목포와 영암 등에 예상 수요의 2만9000실의 1.5배인 4만5000실의 가용숙박 시설을 마련, 잠자리 불편을 해소했다. 5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800여명의 오피셜 지원 속에 대회 진행도 합격점을 받았다.

◇케이팝(K-POP) F1을 물들이다=이번 대회에서는 케이팝(K-POP) 공연, 축하비행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곁들여졌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K-POP 공연 등이 있어 F1 팬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부 팬들은 하루 전날 이들 공연을 보기 위해 영암 서킷을 찾아 밤을 지새

우기도 했다.

예선일에는 상설 패독 주차장에서 ‘MBC 쇼! 음악중심’, 결선일에는 씨스타 등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팬들은 열광했다.

또 경기 전 펼쳐진 블랙이글 축하비행은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영암호와 경주장 위 창공을 가로지르며 15분간 펼쳐진 에어쇼는 F1 관람의 묘미를 더했다.

영암 서킷 밖에서 펼쳐진 문화행사도 흥겨웠다. 목포 시민문화센터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세실리아의 이발사’가 상연됐으며 영암 도감사에서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F1 그랑프리 페스티벌이 열렸다.

◇전남도-FOM 사사건건 갈등=주관사인 FOM과 F1 조직위원회의 갈등은 ‘육의 티’였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섭외해야 할 메인스폰서도 찾지 못했다. 2011년 2

곳이던 메인스폰서는 지난해에는 SK루브리컨츠 한 곳에 불과했고, 올해는 참여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다.

F1 비즈니스 중 하나인 기업 부스(CS·일명 스카이박스)도 조기 판매됐던 2011년과 달리 3분의 2 정도만 팔렸다. 타이틀 스폰서도 4년 연속 무산됐다.

◇정부지원 등 속제=올해 대회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F1 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해마다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고, 그나마 ‘국회 쪽지예산’으로 100억원 남짓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반영된 F1 운영비 100억원 중 50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204억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표를 팔아서 F1 적자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F1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유·무형과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FOM 신경전 ... 체커드 플래거 ‘씨스타→박준영 지사’로 바뀌

<F1 매니저먼트>

### 이모저모

올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전남도와 포플러엔터테인먼트(FOM) 사이의 개최권료 협상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전남도와 더 받아내려는 FOM간의 신경전은 전남도가 요구한 체커드 플래거를 FOM이 거절하는 등 자존심 대결 양상까지 보였다.

### “FOM 회장에 감사” 이색 현수막

○“대회가 열린 영암 서킷에 전남도가 버니 에클레스턴 포플러엔터테인먼트(FOM) 회장에 대한 감사를 담은 이색(?) 현수막이 게시돼 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F1 ‘최고 실력자’로 불리는 에클레스턴은 F1 대회의 상업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F1 개최권료를 해마다 큰 폭으로 올리는 등 폭력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Thank you Mr Ecclestone for 2013 F1 Korean GP!”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진 현수막은 대회 기간 내내 레이싱 팀 빌딩과 미디어 센터 등이 있는 패독 입구 건물에 게시됐다. 현수막 밑에는 전남도지사로부터 감사 인사임을 뜻하는 “Governor of Jeollanamdo”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전남도를 비롯한 개최 도시들이 에클레스턴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개최권료 폭리에 대한 반어적 의미를 담은 일종의 유머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공중쇼 하려면 보험료 8000만원”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관련해서도 전남도가 FOM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FOM측은 서킷 인근 상공에서 공중 쇼를 하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 80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회가 열리는 사흘간 경기장 시설, 운영 등을 모두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꼭 예비행 중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결국 F1조직위와 FOM은 경주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축하 비행을 하는 선으로 합의했지만 전남도는 ‘FOM이 억지를 부린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해도 너무하는 ‘트집 잡기’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체커드 플래거’ 선정 과정에서 전남도와 FOM이 갈등을 빚었다. 전남도는 인기 걸그룹 ‘씨스타’를 체커드 플래거로 선정해 홍보했지만 FOM측이 “베네통이나 펠레치넬리 세계적 스타성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이다.

한국대회 체커드 플래거는 지난 2011년 대회에는 LG전자의 마케팅 최고책임자인 강신의 사장이, 지난 대회는 가수 싸이가 선정돼 씨스타 선정에 반대하는 FOM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전남도는 F1 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로 체커드 플래거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전남도가 대회 개최권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 감

정이 상한 FOM측이 이유 없는 트집잡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스웨덴 왕자 칼 필립 결승전 관람

○“스웨덴의 칼 필립 왕자가 결승전 관람을 위해 6일 영암 서킷을 찾아 관람객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전문 레이싱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모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필립 왕자는 이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경주장을 방문해 대회를 관람했다.

그라픽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는 필립 왕자는 F1 관람 후 홍익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 출입증 찬 용감한(?) 여중생들

○“부대행사로 마련된 케이팝(K-POP) 공연을 보러던 열성 소녀팬들이 버섯이 관계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 F1 조직위원회의 한 때 비상이 걸렸다. 예선이 펼쳐진 5일 영암 서킷에서는 MBC ‘쇼! 음악중심’ 생방송 공연을 보기 위해 오전부터 4800여명이 넘는 관중이 몰려 긴 줄이 늘어섰는데, 여중생 4명이 대회 관계자의 출입증을 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출입증을 유출한 관계자 색출에 나서기도 했다

### 2000여명 오토캠핑장 이용 관람

○““F1 대회를 즐기며 무료로 오토캠핑장도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인터내셔널 캠프 동호회 ‘캠핑동아’의 회원인 김동섭(52·강진군)씨는 주변 숙박시설 등이 미흡했던 F1대회에서 무료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적절한 방안이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F1은 김씨처럼 2000여명이 캠핑을 하면서 대회를 관람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F1조직위원회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회장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해남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F1 캠핑장을 조성, F1 대회가 열리는 4일부터 6일까지 무료로 텐트촌과 오토캠핑장을 제공했다.

김씨는 “좋은 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좋지만 F1대회를 찾은 외·내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즐기는데 캠핑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해남 캠핑장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외·내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활동하는 동호회에서도 2000여명이 단채로 캠핑을 하며 이번 F1 대회를 관람했다. 산악자전거, 등산 등 야외레저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오토캠핑을 접한 김씨는 “오토캠핑의 매력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는데 있다”며 “F1 경기를 관람하고 남은 시간에는 진도 등 대회장 주변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